

오리농법 이야기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오리협회에서 오리나 잘 키워 파는 대책이나 강구하면 그만이지, 무슨 쌀농사 타령만 하면 뭐해!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도, 오리농법연구회를 만들어 사비를 털어 농민들에게 책자를 만들고 연수회를

열어 오리농법을 보급하는 등, 그야말로 본말(本末)이 전도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사단법인 인가가 나오기 전인데, 당시에는 오리농법에 사용되는 오리는 야생오리와 집오리를 교배시켜(?) 만든 아이가모라는 오리로서 아이가모만이 눈에 풀을 제조할 수 있다하여 새끼오리 값을 수당 8,000원씩 판매를 하였으며,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리농법이 성행하는 일본의 가고시마대학 만다교수와 그 일행이 방한하여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었다.

그러나 지금 오리농법을 하는 눈에는 우리의 오리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오리농가들은 하나같이 사기꾼이요, 협잡꾼이 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때는 오리고기 시장 규모가 연 2~300억 원대에 불과한 때인지라, 오리업계는 조금만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면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리농법 연구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걸음마도 힘겨운 시절에 오히려 벼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음식찌꺼기 문제가 심각했던 때에 음식찌꺼기를 매개로 도농교류를 생각

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된 음식찌꺼기를 사료화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서로 고마운 존재가 됐던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의 발로이며, 바둑격인 중의 聲(성) 東(동) 擊(격) 西(서) (동쪽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 틈에 서쪽으로 공격하는 것)인 것으로서 오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나는 오리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항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축산 분야가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낙인 찍혔지만 오리는 오리농법을 통해서 환경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푸른 눈에 버 포기 사이로 놓고 있는 오리들을 보면서 “오리는 환경을 살리는 가축이다”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다.

최근 축산신문에 오리협회 회장이 사회 복지시설에 오리고기를 후원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로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오리업계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나, 사회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저 멀리 푸른 눈에 묵묵히 풀을 뜯는 오리처럼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쉬울 따름이다.

끝으로 지금부터 13년 전 쯤 당시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에 실린 오리농법 칼럼을 소개하면서, 날도 더워지는데 섭생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기를 기원하겠다.